

세계 3G/3.5G 서비스 현황

WCDMA 넘어 HSDPA 활성화 기대 ... 서비스 사업자 의지 '관건'

5년 전 엄청난 기대를 안고 시작된 3세대 이동전화 서비스는 이제 3.5세대로 진화하고 있다. 3세대 서비스도 채 정착되기 전에 3.5세대 서비스로의 진화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혹자들 평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진화를 한다는 사실이다. WCDMA·HSDPA 등 기대를 받고 있는 3세대 관련 서비스 동향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글 | 심우성 기자(wsung@itn.co.kr)

CDMA2000을 3세대 서비스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를 여부에 대해 아직도 분분하지만 일단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포함시켰을 때, 84개국에서 196개 사업자가 3세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149개 사업자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47개 사업자는 아직 3세대 가입자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 상황이면 3세대 서비스 현황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84개국의 196개 사업자가 3세대 서비스를 개시했다면 오히려 3세대 천국으로 불려도 무방할 듯하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3세대 서비스의 태동기로 잡고 있다.

그건 196개 사업자 중 47개 사업자가 아직도 가입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방증한다. 무늬만 '서비스 제공' 일 뿐 기실 아무 내용도 없는 그런 상태 말이다.

》》》》》 HSDPA 서비스 현황

2006년 6월 현재 HSDPA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거나 서비스 개시 시기를 표명한 사업자는 99개에 달한다. '인포마 텔레콤&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99개 사업자 중 32개 사업자(25개국)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휴대폰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곳은 SK텔레콤 및 KTF 정도이다.

대부분 데이터카드를 출시한 정도, 휴대폰도 출시하지 않았고, 데이터 카드도 출시하지 않고

HSDPA 서비스를 개시한 것으로 발표한 사업자도 수두룩하다. 대응 단말기도 없이 그들이 어떻게 HSDP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에 대해 퀄컴의 심상규 차장은 "단말은 없더라도 망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서비스 개시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그런 경우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에 따르면, 휴대폰 출시 2개 사업자, 데이터 카드 5개 사업자 등 총 7개 사업자가 단말을 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25개 사업자는 구색만 갖춘 것으로 풀이된다.

HSDPA 서비스 주요사업자 현황

사업자	국가	기술방식	서비스 시작
KTF	South Korea	HSDPA	6월, 2006
SKTelecom	South Korea	HSDPA	5월, 2006
VIPnet(Vodafone)	Croatia	HSDPA	4월, 2006
T-Mobile	Netherlands	HSDPA	4월, 2006
Eurotel	Czech Republic	HSDPA	4월, 2006
Vodafone	Portugal	HSDPA	4월, 2006
VODACOM	South Africa	HSDPA	4월, 2006
MTN	South Africa	HSDPA	3월, 2006
T-Mobile	Austria	HSDPA	3월, 2006
Vodafone	Germany	HSDPA	3월, 2006
Walanaya Telecom	Kuwait	HSDPA	2월, 2006
Mobilkom	Austria	HSDPA	1월, 2006
Cingular	United States	HSDPA	12월, 2005
Manx Telecom	United Kingdom	HSDPA	11월, 2005

그외 77개 사업자는 현재 망을 구축 중(in deployment)이거나 서비스 계획(Planned)을 가진 사업자들이다. 그러니까 일정한 공개했을 뿐 변수는 항상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이다.

현재 HSDPA 서비스는 1.8Mbps 속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고 14.4Mbps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이론 상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업계에선 조만간 3.6Mbps의 속도 진화를 예상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SK텔레콤 및 KTF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휴대폰으로 HSDP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휴대폰 기반 HSDPA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이 제공하는 HSDPA 서비스는 현재 서울·인천·부산·대구·대전·제주 등 25개 주요 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를 최단기간 내 84개시로 구축을 완료, 전국서비스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올해 HSDPA 가입자 30만명 확보를 목표로 잡고 있다.

SK텔레콤은 또한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HSDPA 서비스가 고객에게 보다 편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3G+' (3G플러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도 출시했다.

단말기는 기 출시된 삼성 'W200' 외 연내 4~5종의 단말기를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KTF도 지난달 30일부터 HSDPA 단말기 2종을 출시하고 수도권·6대 광역시 및 주요도시 등 전국 50개시(인구대비 약 80% 커버리지)를 대상으로 서비스(브랜드명 :월드폰 뷰)를 상용화했다. 올해 말까지는 전국 84개 모든 시 단위 지역(인구 대비 약 91% 커버리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TF는 HSDPA(WCDMA포함)간 로밍이 가능한 일본과 싱가포르·호주 등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 등을 포함해 연말까지 25개국으로 커버리지

를 확대하고, 아직 HSDPA가 상용화 되지 않은 GSM 서비스 지역은 연말까지 GSM 자동 로밍을 구현하여 전세계 전체 90여 개국에서 음성·영상·SMS·MMS 및 무선 데이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WCDMA 서비스 현황

무려 101개의 서비스 사업자들이 WCDMA 서비스 개시를 발표했으며, 현재 가입자는 5600만 명 수준이다. 작년에 연간 5000만대의 관련 단말기가 발표됐고, 올해 연간 1억대의 단말기가 판매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무려 100개 이상의 서비스 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이들 사업자 대부분은 HSDPA 서비스로의 진화를 상정하고 있어, 올해 WCDMA 단말기 발표는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건 기대치일 뿐 내실은 좀 다른 상황이어서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현재 5600만명의 WCDMA 가입자 중 일본의 NTT도코모가 40% 정도인 240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절대적인 편중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도코모를 제외한다면 그외 서비스 사업자들은 WCDMA 서비스 제공으로 이름만 올렸을 뿐 가입자 유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서비스 사업자들의 단말기 제공 현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100개의 WCDMA 서비스 사업자 중 최근까지 10종류 이상의 관련 단말기를 제공한 곳은 10개 사업자 정도에 불과하다.

도코모와 일본 보다폰이 각각 36개 및 22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홍콩·영국·호주 등에서 활동 중인 허치슨이 각 국가별로 10개 이상의 단말기를, 영국·독일 보다폰이 또 10개 이상의 단말기를 공급했을 뿐 그 외 국가들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실정이다.☒